세계농화학시장

Monsanto, GMO 업고 “우뚝 서다”

농화학이나 농업 바이오테크(Biotech) 시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농작물보호(Crop Protection)제품생산기업들에게 2004년이 또 다른 도전기회로 다가올 전망이다.

농화학 시장은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달러약세로 인한 긍정적 통화효과에 힘입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범용제품 가격상승, 오일시드(Oilseed), 옥수수 및 시리얼 재배확대, 옥수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유럽연합(EU)의 보류지 감소로 인한 농작물 재배면적 확대의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EU가 새로운 바이오테크 제품승인에 대한 유예기간을 폐지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5년 안에 EU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작물(GMO) 수입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농작물보호기업들의 2004년 최대 이슈는 농작물보호시장 회복여부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에 비해 다소 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농작물보호 시장이 1996년 이후 연평균 약 3% 감소해왔기 때문에 2004년 확실한 반등세를 나타낼 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Cropnosis에 따르면, 통화효과를 무시했을 때 세계 농화학 시장은 2004년 280억달러로 약 0.7%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농화학 시장규모

(단위: 100만달러)

구 분	2002	2003	2004
제초제	12 475	12 999	13 076
살충제	7 314	7 738	7 755
살균제	5 450	5 710	5 814
기 타	1 322	1 374	1 371
합 계	26 561	27 821	28 016

자료) Cropnosis

Syngenta, Monsanto에 비해 수익전망 불투명

몇몇 대규모 농화학기업들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Syngenta는 2004년 농작물보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경기여건이 회복되고 있어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성장기회를 100% 활용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농작물, 특히 옥수수 및 시리얼 재고가 부족한 상태이며, 농작물가격 상승세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의 보류지 면적이 전체의 10%에서 5%로 줄어들고 남아프리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경기여건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몇가지 부정적 요인을 지적하며 Syngenta의 낙관적 전망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Syngenta는 2003년 달러약세에 힘입어 매출이 약 9%,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 Amortization) 수준이 약 2% 상향조정됐으나 코스트기반이 유럽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아시아 GMO 생산기업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이다.

기후조건도 부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로 Syngenta는 2003년 유럽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살충제 사업에 큰 피해를 입었다. Syngenta의 2003년 전체 매출(통화효과 무시)은 55억달러로 전년대비 약 2% 감소했는데, 이는 살충제 매출이 14억달러로 6%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yngeta는 Bayer의 Flint 또는 BASF의 신제품 F500에게 살충제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재고증가도 부정적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 2003년 더운 날씨로 인해 농가나 유통기업 모두 농작물보호 화학제품 재고를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3위 Monsanto의 농작물보호제품 Roundup Ready Corn의 미국시장 침투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Syngenta에 위협이 되고 있다. Roundup Ready Corn의 미국 시장 침투율은 10% 중반대로 추정되나 앞으로 5년 안에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EU의 GMO 수입금지 철회에 힘입어 Roundup Read Corn의 미국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미국 옥수수보호 분야에서 약 5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Syngenta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 유전자변형농작물수입허용할듯

EU는 1991년 이후 총 18개의 GMO에 대한상업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7개 EU 회원국에부과된새로운 GMO 수입에대한 승인연기로 인해 1998년 10월이후 다른 새로운GMO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EU 법안은 과학적검증조건을충족시키는GMP 제품 승인에 대한 기준을정하고있어 앞으로EU 지역에서새로운GMO 제품수입 및 상업판매가가능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TOP 농화학기업 매출

(단위: 100만달러)

순 위	회사명	농화학	종 자	합 계
1	Syngenta	5 507	1 071	7 358
2	Bayer CropScience	6 099	339	6 288
3	Monsanto	2 466	1 971	4 437
4	DuPont	1 991	2 246	4 237
5	Dow AgroSciences	2 797	211	3 008
6	BASF	3 217		3 217
7	Sumitomo Chemical	1 224		1 224
8	Makhteshim-Agan	1 035		1 035
9	FMC	640		640
10	Nufarm	634		634

‡추정치

자료) Cropnosis

2004년 4월18일부터 적용된 EU의 새로운 라벨링 규정에 따르면, EU 지역의 GMO 추적 시스템 통합, GM 사료 라벨링 도입, GM 식품 라벨링 규정 강화, 식품 · 사료의 GMO 허용 및 배출 절차 합리화를 통해GMO 승인절차도간소해질 것으로예상된다.

유럽위원회(EC)에 따르면, EU 개정법은 엄격한 규정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기존의 법적 차이를 없애고 시민, 수요기업 및경제기관의 법적우려를해소하는것을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GMO 제품 안전성 평가기준이 강화됨으로써 건강 및 환경보호 수준도 높아지고 GM 식품 및 사료 제품에 라벨을 붙임으로써 수요기업 및 농민들이 안심하고제품을 선택할수있을 것으로예상되고있다.

Monsanto, EU의GMO 수입허용최대수혜자

EU의GMO 승인절차가간소화되면서 가장 이득을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화학기업가운데하나가 바로Monsanto이다.

현재 EU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GMO 제품은 총 20개에 달하는데, 11개가 Monsanto 제품이다. 특히, Monsanto의 Monsanto NK 603 GM Maize(NK 603 Roundup Ready Corn)는승인이임박한것으로알려져 있다.

그러나EU 개정법은 EU 조정위원회로넘어가기에앞서 2004년2월 투표에부쳐졌으나찬성표부족으로부결됐다. 덴마크, 그리스, 이태리, 오스트리아및룩셈부르크가반대표를던졌으며독일은기권한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Roundup Ready 수입허용여부는 EU 각료회의에 달려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새로운GMO 개정법에따라 EU는 90일안에의결을통과시켜야하며그렇지 않으면 EU 환경위원회에서결정하게된다.

몇몇 전문가들은 각료회의에서 투표가 부결된다 하더라도 EU 환경위원회가Roundup Ready 시판을허용할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EU에서Roundup Ready 판매가허용되면 Monsanto의 유럽시장침투율은 35%에서 50%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Syntenta는Bt Corn 제품에 대한 재검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Bt Corn 제품은203년 12월 EU 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각료회의로 넘어갔으며 기한 내에결정이 내려지지않으면 환경위원회가 시판 여부를결정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NK 603 Roundup Ready와 함께 Monsanto의 병충해 보호 옥수수 GMO 제품인 YieldGard 또한 유럽식품안정기구(EFSA)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YieldGard는1998년 EU로부터 수입 허용 판결을 받았으며 EFSA는 2003년 12월 NK 603에 대해긍정적인의견을표명했다.

Monsanto의 또 다른 제품 Rounup Ready Canola도 EU의 승인절차에 들어갔는데, EFSA는 Roundup Ready Canola가 일반 오일시드만큼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C가 EU 조정위원회의 투표에 부치면 몇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작물보호 시장 구조조정활발

농작물보호 시장은 2004년들어 주요한변화가나타나고 있다.

2002년 Aventis CropScience를 인수함으로써 세계 2위 농작물보호기업으로 떠오른 Bayer CropScience는 Aventis와

Aventis CropScience 인수가격인 72억5000만유로에서 3억2700만유로(4억달러)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Bayer은 2002년 6월 거래를 종료했으나 운영자본 및 순부채 등 몇몇 자산 가치평가에서 Aventis와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농화학 시장에서는 최근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데, BASF는 2003년 11억9000만유로에 Bayer의 Fipronil 사업과 몇몇 살충제 사업을 인수해 2004년 2월 거래를 완료했다. Bayer은 Aventis CropScience를 인수한다는 조건아래 Fipronil 사업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Sumitomo Chemical은 자회사 Sumika-Takeda Agro와 Seibu Kasei를 합병해 Sumika Agro를 설립하고, 또한 농화학사업 가운데 Kaiwaryokuka와 Nihon Green & Garden을 합병해 Nihon Green & Garden을 설립했다. 2개의 신생 합병기업은 2004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Sumitomo는 전 농화학사업부 및 자회사를 Sumitomo Chemical Takeda Agro로 합병하고 있으며 2007년 완료할 예정이다.<화학저널 2004/07/26>